

Seven signs – Sermon 7 – Sermon Notes

Title: “I can see it now”

Sixth sign: Sight to the blind

Scripture: John 9:1-12

Date preached: July 24th 2022

Scripture: John 9:1-12

1 Now as *Jesus* passed by, He saw a man who was blind from birth. 2 And His disciples asked Him, saying, “Rabbi, who sinned,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was born blind?”

3 Jesus answered, “Neither this man nor his parents sinned, but that the works of God should be revealed in him. 4 I must work the works of Him who sent Me while it is day; *the* night is coming when no one can work. 5 As long as I am in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6 When He had said these things, He spat on the ground and made clay with the saliva; and He anointed the eyes of the blind man with the clay. 7 And He said to him, “Go, wash in the pool of Siloam” (which is translated, Sent). So he went and washed, and came back seeing.

8 Therefore the neighbors and those who previously had seen that he was blind said, “Is not this he who sat and begged?”

9 Some said, “This is he.” Others *said*, “He is like him.”

He said, “I am *he*.”

10 Therefore they said to him, “How were your eyes opened?”

11 He answered and said, “A Man called Jesus made clay and anointed my eyes and said to me, ‘Go to the pool of Siloam and wash.’ So I went and washed, and I received sight.”

12 Then they said to him, “Where is He?”

He said, “I do not know.”

1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 된 사람을 보셨다 2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자 3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 □□ □□ □□.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4 우리는 낮 동안에 그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알할 수 없다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6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7 그에게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 못에 가서 씻어야” 하셨다 그래서 소경은 가서 씻고 눈을 뜨고 돌아왔다 8 그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구걸하던 것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없어서 구걸하던 거지가 아니냐” 하자 9 어떤 사람은 “그래 바로 그거지야”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거와 닮은 사람이야” 하였고 그러나 본인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10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눈을 뗐느냐?” 11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사기에 가서 씻었다니 보게 되었습니다” 12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Review

Today we will be looking at the sixth of seven special signs performed by Jesus that John records in his gospel. Last time we looked at Jesus' fifth miracle. It was the moment that Jesus walked across the stormy Sea of Galilee to meet the disciples in the boat. Let us briefly recap some of the things we discussed last time.

This sign took place shortly after the feeding of the multitudes. As John tells us that sign caused many to wonder who exactly Jesus was. Many concluded that Jesus was the one that Moses had predicted would come. Moses had said that the one to come would be like him. Moses had been both a political and military leader of God's people. Therefore many had similar expectations for the Messiah. They desperately wanted a powerful leader who would lead them to independence against their Roman oppressors. Therefore there arose a feeling among many of the people that Jesus should be installed as king. The feeling was that He could lead them to victory against the Romans. This of course was not why God had sent the Lord Jesus into the world. Jesus did not want this kind of confrontation with the people and so He went off up into the mountains to be alone.

He had sent the disciples away and it seems as if they had arranged to meet later in Bethsaida. As the day wore on Jesus had not come. The disciples therefore decide to travel by boat to Capernaum. Jesus could meet them there. As darkness fell the disciples set off. They had not travelled far before a fierce storm erupted. As I said last week the climatic conditions around the Sea of Galilee means that it is prone to sudden violent storms. There can be surprisingly strong winds that come down from the mountains unexpectedly. These can produce waves that can be up to two metres in height.

So we can imagine the disciples rowing hard as they battle against the wind and waves. Progress was very slow, and despite being out on the lake for many hours they had only travelled three or four miles. It is in this moment of exhaustion, frustration and possibly despair that they see a figure. Not a figure on the shore but someone walking across the water in their direction. Their natural response was fear. What could it be except a ghost or spirit. As the figure drew near the boat He spoke and told them that He was Jesus. His actual words were, "It is I." As I said last week this is the Greek expression *ego eimi* which literally means "I am." On the one hand Jesus was telling them not to be afraid because it was only Him. On the other hand He was reminding them, and us that He was/is the great I am. The one and only eternal creator and sustainer God. The one in whom all things rest. Therefore they had no reason for fear or concern. The disciples are no doubt overjoyed that it is Jesus and take Him into the boat. We are then told that the boat immediately reached its destination. There are a number of ways this might be interpreted. My personal opinion is that this was a second miraculous sign and Jesus instantly transported them to where they were going.

As I have made a point of saying the signs were always performed with a purpose. Jesus did not walk on the water as a stunt. He certainly didn't do it to show off or try to impress the disciples. He did it to bolster the faith and courage of the disciples. Soon He would be leaving them and they would face difficult times. They would be hunted and persecuted. When these hard times came they would remember back to this moment on the water. They would remember that Jesus came to them in their hour of need. He would always be there for them when they needed Him. The same of course still applies to His followers today. The Lord Jesus is never far away.

오늘 우리는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 기록한 예수님의 일곱 가지 특별한 표적 중 여섯 번째 표적을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다섯 번째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우 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제자들을 만나신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논의한 몇 가지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표적은 무리를 먹인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그 표적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의아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세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분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이가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치 지도자이자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 비슷한 기대를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자들에 맞서 독립을 이끌 강력한 지도자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되어야 한다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그 느낌은 그분이 로마인들에 대한 승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아닙

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이런 대결을 원치 않으셔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보내셨고 나중
에 벳새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신 것 같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내려자 제자들이 출발
했습니다. 그들은 맹렬한 폭풍이 일어나기까지 멀리 여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난 주에 말했듯이 갈릴리 바다 주변
의 기후 조건은 그것이 갑자기 격렬한 폭풍우를 일으키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
외로 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최대 2 미터 높이의 파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이 바람과 파
도에 맞서 싸우며 힘차게 노를 젓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진행 속도는 매우 느렸고 여러 시간 동안 호숫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3~4 마일을 여행했습니다. 그들이 한 인물을 보는 것은 피로, 좌절, 절망의 이 순간입니다.
해안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그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유
령이나 영혼이 아니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그 형상이 배에 가까이 오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며 자기가 예수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그의 실제 말은 "나다"였다. 지난 주에 말했듯이 이것은 문자 그대로 "나는 있다"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표현 *ego eimi* 입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직 그분뿐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그분은 그들과 우리에게 그분이 내가 위대하신 분임을 상기시키고 계셨습니다. 유약하고 영원한 창조주이자
유지자이신 하나님 만물이 안식하는 분. 그러므로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틀림없
이 예수님이시며 그를 배에 태우실 것을 가뻔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트가 즉시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의 징조였으며 예수님은 그들
을 그들이 가고 있는 곳으로 즉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표적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묘기로 물 위를 걷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확실히 제자들에게 과시하거나 감명을 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
니다. 제자들의 믿음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앎아 그분은 그들을 떠나실 것이며 그들은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상과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 힘든 시간이 오면 그들은 물 위에서 이 순간
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때에 그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을 필요로 할 때 항상 그들을 위해 그곳에 계셨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동일하
게 적용됩니다. 주 예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Introduction

We turn today to the sixth sign. As I noted back in my introduction Jesus is recorded performing numerous signs and miracles in the gospels. These miracles are often divided up into different categories. The largest category can be classified as “permanent disabilities healed.” Today's miracle obviously slots into this category. Interestingly there are more accounts across the gospels of Jesus giving sight to the blind than any other form of healing (see Matt. 9:27-31; 12:22-23; 15:30-31; 21:14; Mark 8:22-26; 10:46-52; Luke 7:21-22).

What is so significant about the giving of sight to the blind? Why would Jesus perform this sign more than any other? Well in the Old Testament the giving of sight to the blind is associated with God himself. We might think here of Exodus chapter 4 verse 11.

So the LORD said to him, “Who has made man’s mouth? Or who makes the mute, the deaf, the seeing, or the blind? *Have* not I, the LORD?

The restoring of sight to the blind is also very importantly seen as a messianic activity. I think particularly of Isaiah chapter 29 verse 18 and 35:5

In that day the deaf shall hear the words of the book, And the eyes of the blind shall see out of obscurity and out of darkness. (Isaiah 29:18)

**Then the eyes of the blind shall be opened, And the ears of the deaf shall be unstopped.
(Isaiah 35:5)**

These verses talk about the great hope we have in restoration and reconciliation with God through the work of the Messiah. It's not surprising then that the Lord Jesus Christ performs a number of miracles restoring sight to the blind.

우리는 오늘 여섯 번째 표지판으로 돌아옵니다. 서론에서 다시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종종 다른 범주로 나뉩니다. 가장 큰 범주는 "완치된 영구 장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적은 분명히 이 범주에 속합니다. 흥미롭게도 예수의 복음서에는 다른 어떤 형태의 치유보다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참조 마 9:27-31, 12:22-23, 15:30-31, 21:14, 막 8: 22-26, 10:46-52, 눅 7:21-22).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하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다른 어떤 표적보다 이 표적을 더 많이 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맹인에게 시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기 4 장 11 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병어리, 구마거리, 보는 사람, 눈 먼 사람은 누가 만듭니까?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맹인의 시력 회복도 메시아 활동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저는 특히 이사야서 29 장 18 절과 35:5 를 생각합니다. 그 날에 구마거리가 책의 말씀을 들을 것이요 소경의 눈이 캄캄한 데서와 어두움에서 보게 되리라. (이사야 29:18)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구마거리의 구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35:5) 이 구절들은 메시아의 역사를 통한 회복과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한 우리의 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경의 시력을 회복하시는 여러 기적을 행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Scene setting

Before we look at this sign let me set the scene. Following the feeding of the multitudes and the walking on the water Jesus taught in Capernaum. Many found His teaching hard and left Him. Despite this He continued to minister in the Galilee region. As the Feast of Tabernacles approaches He is encouraged by His brothers to go into Judea. He initially rejects their ideas, but later goes up in secret to Jerusalem. In Jerusalem He visits the temple and teaches there. This is where we find Him in chapter 9.

이 표지판을 보기 전에 장면을 설정하겠습니다. 무리를 먹이시고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물 위를 걸으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어렵게 여기고 그분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사역하셨습니다. 초막절이 다가오자 형제들의 권유로 유대로 가자고 합니다. 그는 처음에 그들의 생각을 거부했지만 나중에 비밀리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분은 성전을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9 장에서 그분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1 Now as Jesus passed by, He saw a man who was blind from birth.

As Jesus is walking around, probably in the vicinity of the temple he sees a blind man. The temple gates were a common place for beggars to congregate. In the ancient world (and still in many places today) it was common to see people with disabilities begging in public places. There was no welfare system in place and no meaningful way such people could be employed. The Jews generally were sympathetic and charitable especially towards the blind. However to have to rely on the charity of others through begging is both degrading and demeaning.

It also meant that the parents of a disabled child would always be burdened with their care even when they were old. John tells that this particular man had been blind from birth.

I wanted to find out the figures for how many blind people there are in the world. I did some

research online and found out on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website the statistics for visually impaired people around the world. Vision or lack of vision is measured across a wide spectrum. On the one end of the spectrum we have mild vision impairment. People who have some vision but it is marred or imperfect. On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we have complete blindness. People who live in a world of darkness. According to the WHO's global statistics (Oct 2021) can you guess how many people on the planet have some form of vision impairment? At least 2.2 billion people have some form of vision impairment. I confess that I was shocked. What was even more shocking, saddening really was that of these at least 1 billion of these people could have been helped if medical treatment had been available. Be thankful that you live in a country that has excellent medical care.

In our story today the man we are told had been blind from birth. Interestingly, this is in fact the only miracle recorded in the Gospels in which the sufferer is said to have been afflicted from birth. Why does John make a point of emphasising this? I can see two reasons. Firstly he emphasises this because he does not want us to be under an illusion about the power of this miracle. On the spectrum of visual impairment this man was at the extreme end. Jesus did not just come along and help a man who had slightly blurry or unfocused vision. He would cure a man who had been completely blind for perhaps forty years.

Secondly John is emphasising a deeper spiritual point. We are all born spiritually blind. We are all surrounded and consumed by the darkness of spiritual death. Our vision of what is real and true is only restored when we fully and completely encounter the light and illumination of the Lord Jesus Christ. Let us read on.

예수께서 이리저리 다니실 때 성전 근처에서 맹인을 보셨을 것입니다. 성전 문은 거지들이 모이는 일반적인 장소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곳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공공 장소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복지 시스템이 없었고 그런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특히 시각 장애인들에게 동정적이고 자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구걸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사랑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굴욕이자 모욕입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는 나이가 들어도 늘 돌보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 특정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세계에 얼마나 많은 시각 장애인이 있는지 수치를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온라인에서 약간의 조사를 했고 세계 보건 기구 웹사이트에서 전 세계 시각 장애인 통계를 찾았습니다. 시력 또는 시력 부족은 넓은 스펙트럼에서 측정됩니다.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가벼운 시력 장애가 있습니다. 시력이 어느 정도 있지만 손상되었거나 불완전한 사람들.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에는 완전한 실명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 WHO의 글로벌 통계(2021년 10월에 따르면 지구상에 어떤 형태로든 시력 장애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22억 명의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시력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더욱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것은 이들 중 최소 10억 명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에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들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사실 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며 고통받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괴로웠다고 합니다. 요한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우리가 이 기적의 능력에 대한 환상 아래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합니다. 시각 장애의 스펙트럼에서 이 사람은 극단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약간 흐릿하거나 초점이 맞지 않는 사람을 도우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40년 동안 완전히 장님이었던 사람을 고쳐 주실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더 깊은 영적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사망의 흑암에 둘러싸여 있고 소멸되고 있습니다. 참되고 참된 것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조명을 완전하고 완전하게 만날 때만 회복됩니다.

2 And His disciples asked Him, saying, “Rabbi, who sinned,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was born blind?”

How do you feel when you see a crippled beggar on the streets? Sadly as you walk around the streets of Anyang or other Korean cities you will at times encounter people dragging themselves along the pavement. I'm sure that when you see such people you feel great sympathy. Perhaps you wish you could help them get out of this begging lifestyle.

Probably you do not do what the disciples did here. They saw this blind man as an opportunity for a theological debate. In effect they saw the man as puzzle or riddle to be solved. Jesus saw him correctly, as a suffering man who needed help.

Let us then look at what the disciples asked Jesus. They assumed as did all the Jews of their day that sin and suffering were connected. In one way they were correct. When Adam and Eve sinned the consequence was a fallen and now damaged world. Why does cancer exist? Why do we age and deteriorate? Why do we suffer with dementia or arthritis? The answer is because human beings sinned. Sin does bring divine punishment (Exodus 20:4). So looking at the big picture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sin and suffering.

However what they wanted to know was whether this man's suffering came about because he or his parents had sinned. In other words, was it possible to connect his blindness to one specific sin.

Now biblically speaking a specific illness or suffering can be the consequence of a particular sin. But, and this point is very important. To claim that every sickness or illness is connected to a particular sin is to go beyond what the bible teaches. It is not something that as human beings we can accurately observe or judge. So I would strongly caution against making ever claims that someone's sickness came about as direct cause of a particular sin.

We should never forget that we are all wicked sinners who but for God's grace would face death for our sins. Let's see how Jesus responds to the disciples question.

거리에서 불구가 된 자를 보면 어떤 기분이 됩니까? 슬프게도 인양이나 한국의 다른 도시를 걷다 보면 길을 따라 질질 끌러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큰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아마도 당신은 그들이 구걸하는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제자들이 여기서 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맹인을 신학적 토론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 □□□ □□□ □□□ □□□□□ □□□ □□□□□**. 예수님은 그를 도움이 필요한 고통받는 사람으로 올바르게 보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죄와 고통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는 타락했고 지금은 손상된 세상이었습니다. 암은 왜 존재하는가? 왜 우리는 늙고 쇠퇴하는가? 치매나 관절염에 걸리는 이유는? 답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벌을 가져옵니다(출애굽기 20:4). 따라서 큰 그림을 보면 죄와 고통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고난이 그 자신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맹목을 하나의 특정한 죄와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특정한 질병이나 고통은 특정한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질병이나 질병이 특정한 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정확히 관찰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의 질병이 특정한 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주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모든 사악한 죄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봅시다.

3 Jesus answered, “Neither this man nor his parents sinned, but that the works of God should be revealed in him. 4 I must work the works of Him who sent Me while it is day; *the night is*

coming when no one can work. 5 As long as I am in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Jesus' answer is that neither this man or His parents sinned. We know of course that they were sinners. All human beings are born and live with an inherited sin nature. But what Jesus means here is that there was no particular sin that resulted in this man's blindness. Or we might understand Jesus as saying here, “I'm not here right now to answer such questions. I'm here to do God's work.” This was because God was about to use this man's suffering as an opportunity to manifest His glory.

We should not understand this to mean that God made this man suffer blindness for years so that the cure might reveal his greatness. This is how Pastor John MacArthur describes what is going on here.

“The purpose of the man's blindness is to reveal the miraculous power of God through the Son of God to substantiate His claims to be the Messiah.”

So Jesus is about to perform an amazing sign that will demonstrate to all people that He is the creator God.

Jesus then goes on to remind the disciples that He was sent to earth to do God's works. It's fine to spend time have theological discussions but actually doing God's work beats just talking about it. Jesus knew what He had been sent to do. God sent Jesus to be the light of the world. To shine the light of truth to those who lived in darkness. The time that He spent on earth, especially His time of public ministry was short. There was much for Him to do in the “day” or period of His earthly ministry. Soon He would return to the Father and the light of His immediate presence would depart.

It serves as a good reminder to us that we are called to work in the time given us. We too often get caught up in talk and meetings when actually doing things would be more profitable. Remember we have finite amount of time to serve God and further His kingdom. Let's use the time we have wisely. Let's move on to examine the miracle itself.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을 눈멀게 한 특별한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께서 여기에서 “나는 지금 그런 질문에 대답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고난을 영광을 나타내실 기회로 삼으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여 그의 위대함을 나타내시려고 여러 해 동안 눈이 멀게 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존 맥아더 목사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 멀게 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나타내어 자신이 메시아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 줄 놀라운 표적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신학적 토론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흑암에 살았던 이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기 위해. 그가 이 땅에서 보낸 시간, 특히 그의 공생애 시간은 짧았다. 그분은 지상 성역의 “날” 즉 기간에 하실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곧 그분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셨고 그분의 즉각적인 임재의 빛은 떠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할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할 때 이야기와 회의에 너무 자주 몰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왕국을 확장할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어진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기적 자체를 살펴보기로 하자.

6 When He had said these things, He spat on the ground and made clay with the saliva; and He anointed the eyes of the blind man with the clay.

Jesus then instructed the blind man to go to the pool of Siloam and wash the mud off his eyes. This pool was located in south-east Jerusalem. Note here that John makes a purpose of telling us that the translation of the pool's name means “sent.” What's the significance? Well remember John's mission is to persuade his readers that Jesus is divine. That He is the Messiah the Christ. So he is emphasising here that Jesus was the one “sent” by God. When the man washed his face in the waters he found that he could see. Let's find out the effect the healing had on the man's neighbours.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씻어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수영장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John 은 풀 이름의 번역이 “보냄을 받은” 을 의미한다고 우리에게 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무슨 의미가 있나? 요한의 사명은 독자들에게 예수가 신성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물로 얼굴을 씻었을 때 그는 볼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치유가 그 남자의 이웃에게 미친 영향을 알아보시다.

8 Therefore the neighbors and those who previously had seen that he was blind said, “Is not this he who sat and begged?” 9 Some said, “This is he.” Others said, “He is like him.”

He said, “I am *he*.” 10 Therefore they said to him, “How were your eyes opened?”

As I said in my introduction in the ancient world disabled people were usually reduced to begging. There was no other way for them to survive. This means this man's neighbours had grown used to seeing him begging and being in a generally miserable condition. Therefore to see him now walking around and able to see must have been incredibly shocking. Some concluded, perhaps reasonably that this could not be the same man. After all people born blind do not suddenly after 40 years recover their sight. It must be another man who just looks similar. Some were convinced that it was the same man. They naturally want to know how this amazing thing came to be. Let's read on.

내가 고대 세계에서 내 소개에서 말했듯이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구걸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 남자의 이웃들이 그가 구걸하고 일반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는 데 익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걸어 다니며 볼 수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마도 합리적으로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40 년이 지나도 갑자기 시력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냥 비슷하게 생긴 다른 남자임에 틀림없다. 일부는 그것이 같은 □□□□□□□□□□.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계속 읽어보시다.

11 He answered and said, “A Man called Jesus made clay and anointed my eyes and said to me, ‘Go to the pool of Siloam and wash.’ So I went and washed, and I received sight.”

12 Then they said to him, “Where is He?” He said, “I do not know.”

The man here gives an accurate summary of what had taken place. He did not know how it had happened, so he just states the facts. Also at this stage he knew very little about Jesus. All he knew was His name. His neighbours are naturally very curious. They want to meet a person who is able to do such amazing things. As I have said before the signs were always performed with a purpose. They were designed to make people ask questions and look beyond the miracle to what it revealed about the one doing the miracle.

The story does not end here. The man would later be interrogated by the Pharisees and after being questioned he would be thrown out or excommunicated from the temple. Following this he again meets Jesus and believes that He is the Messiah. This really was the greatest day of his life. His blindness was cured and then he really met the savior and earned the gift of eternal life. I encourage you to read all of John chapter 9 for yourselves.

여기 있는 남자는 일어난 일에 대한 정확한 요약を提供합니다. 그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서 사실만 진술했습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그의 이름뿐이었습니다. 그의 이웃들은 당연히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내가 전에 말했듯이 표적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행합니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을 하고 기적 너머에 기적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

